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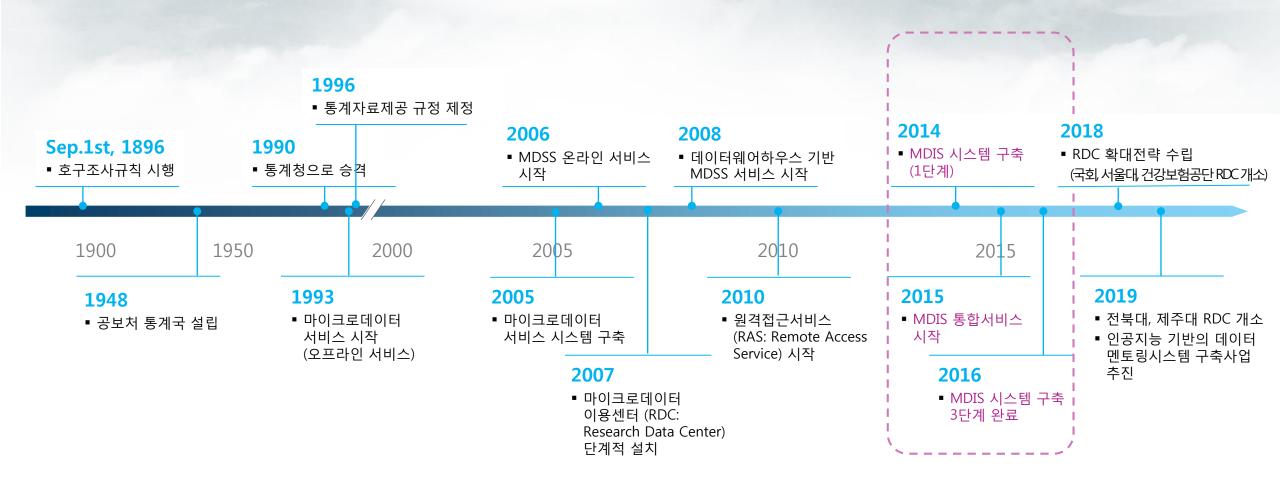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교육

-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

#### 교육 내용

- I. MDIS 소개
  - 1. MIDS 개요
  - 2. MDIS 이용 특징
- II. 고용통계 상세 소개
- III. 경제활동인구조사 MD 활용 사례

### 연혁 통계청 및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연혁



# 생산 마이크로데이터 생산과정



서비스

매크로데이터(Macro Data)라고도 항

### 특징

# 1 Integration: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구축

각 기관에서 마이크로데이터 보관 마이크로데이터 개별 관리 및 서비스 체계 Culture Science Labor Welfare Health Housing • 기관별 자료의 산재 및 자료의 분실위험 높음

• 이용자 관점에서 자료의 접근성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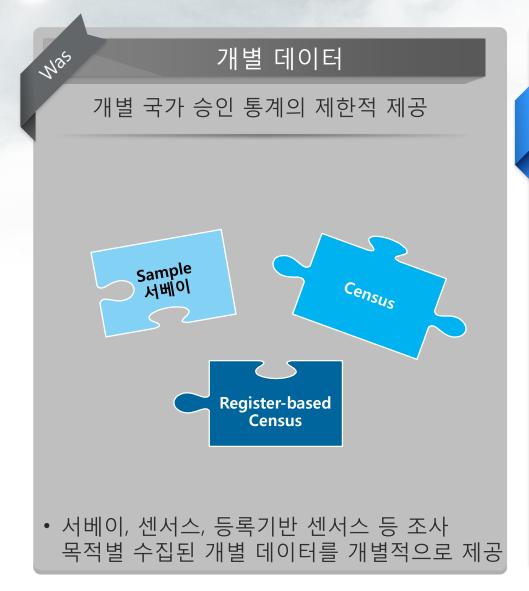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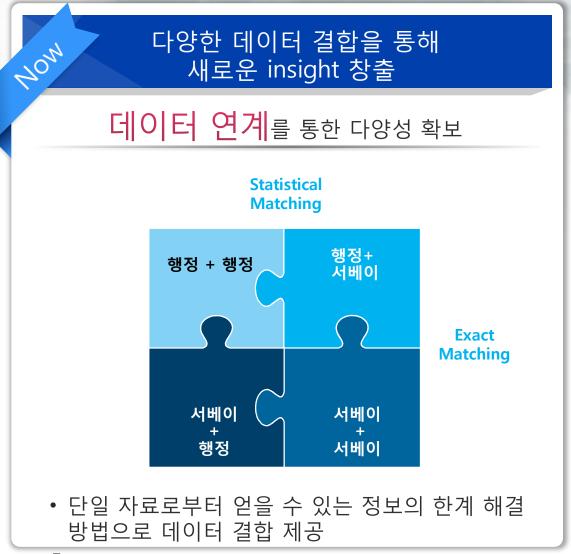
# [참고] 다양한 주제별 자료

인구/가구	고용	물가/가계	보건 사회/복지
<ul> <li>인구주택총조사</li> <li>국내인구이동통계</li> <li>인구동향조사</li> <li>가족실태조사 등</li> <li>경제활동인구조사</li> <li>고용조사</li> <li>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li> <li>근로환경조사 등</li> </ul>		<ul><li>가계동향조사</li><li>가계자산조사</li><li>소비자물가조사</li><li>가계금융복지조사 등</li></ul>	<ul><li>사망원인조사</li><li>보육실태조사</li><li>노인실태조사</li><li>가정폭력실태조사 등</li></ul>
환경	경기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ul><li>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li><li>지상기상통계</li><li>영농폐기물조사</li><li>환경기술실태조사 등</li></ul>	<ul><li> 경제총조사</li><li> 기업활동조사</li><li>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li><li> 소비자전망조사 등</li></ul>	<ul><li>광업/제조업조사</li><li>에너지총조사</li><li>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li><li>로봇산업실태조사 등</li></ul>	<ul><li>도소매업조사</li><li>서비스업 조사</li><li>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 조사 등</li></ul>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농임어업	교육/문화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주거실태조사 • 건설업조사 등		• 농림어업총조사	• 국가영재교육통계
• 주거실태조사		<ul><li>농업생산통계</li><li>양곡소비량조사</li><li>농가경제조사 등</li></ul>	<ul><li>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li><li>국민여가활동조사</li><li>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li></ul>
• 주거실태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특징

# 2 Variety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화





## 특징 3가지 서비스 유형



# [예시] 다운로드 서비스, 공공용 온라인 분석 시스템



## [예시] 인가용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 이용센터 서비스

#### 인가용 서비스

- 자료 다운로드 불가
- 이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
  - 기준: 공공의 이익 실현 & 응답자 비밀보호

- 분석결과 반출 가능(개인자료 반입가능: 심사필요)
- 통계 S/W 제공 : SAS, SPSS, Stata, R & MS 오피스

# 원격접근 서비스 (Remote Access Service) 이용자 컴퓨터 통계청 이용자 컴퓨터 원격서버 이용자 컴퓨터 ■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

#### 이용센터 서비스(Research Data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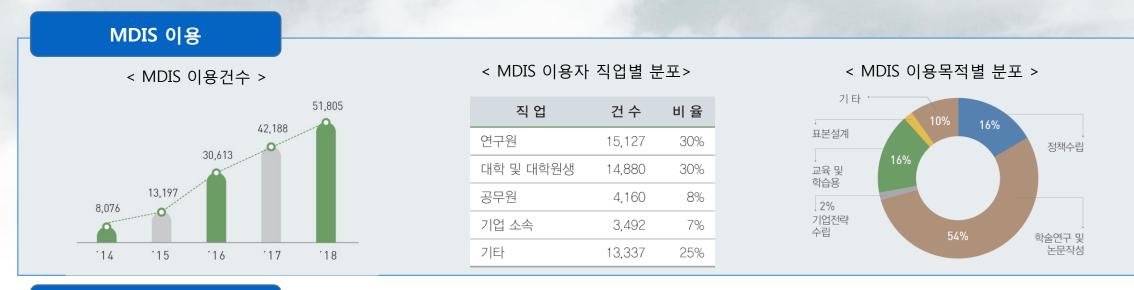


- 전국 9개 RDC 소재
- 년내 1~2개소 추가 개소 진행 중



■ 엄격한 보안 시설 - 카메라, 휴대폰 반입 금지

### 이용자 MDIS 이용의 증가 및 다양화





### 자료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별적 항목 제공

#### 이용 상위 자료

공공용(다운로드)

인가용(RAS, RDC)

1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2 인구동향조사

·경제총조사

3 전국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

4 가계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5 인구주택총조사 4

·광업제조업조사

6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7 경제총조사

인구동향조사

8 국내인구이동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9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10 광업제조업조사

기업체모집단

#### '공공용<인가용' 순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 **조사대상**: 국내 모든 사업체 (전수조사)

■ 제공주기: 1년

■ 서비스유형별 제공항목:

	공공용	RAS	RDC	
항목수	35	38	38+	
추가제공 항목예시		사업체고유번호, 전년도사 업체고유번호, 영업개월수		

#### 인구총조사

■ **조사대상**: 국내 거주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제공주기**: 1년/5년

■ 서비스유형별 제공항목:

(가구원)	공공용	RAS	RDC
제공기준	1%,2%	20% 표본	or 전수
추가제공 항목예시		동제약(상세) 경력단절 이	년전 거주지, 활 , 이용교통수단, 유, 사회활동(분 ŀ생활비원천

#### 경제총체조사

■ 조사대상: 주요산업\*내 모든 사업체

■ **제공주기**: 5년

■ 서비스유형별 제공항목:

(광업제조업)	공공용	RAS	RDC	
항목수	138	160	235	
추가제공 항목예시		사업체고유 번호	주사업매출액비중, 부사업1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제외

#### 기업활동조사

■ **조사대상**: 국내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업체

■ 제공주기: 1년

■ 서비스유형별 제공항목:

	공공용	RAS	RDC
항목수	242	254	335
추가제공 항목예시		창설년도, 모회사국가, 당기순이익	기업체고유번호, 법인등번호, 모회 사명, 사업체수,

(기준 2018)

### 국민생애주기에서부터 산업/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신혼부부행정통계 (국토부)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전쟁에 노출된 태아의 출생후 노후건강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수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기업특성별 일자리 창출 효과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패널자료

고용보험 DB

####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기타)보건복지부, 감정원, 행정안전부 자료

소득, 건강과 자살: 개인 패널 데이터 기반증거분석

사망원인통계조사 (건보)표본코호트자료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통행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력 수단 간서비스수준 균형

인구주택총조사

부재 보완 여부 평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중소제조기업간 네트워크 와 R&D활동과의 관계

기업활동조사

#### 교육 내용

- I. MDIS 소개
- II. 고용통계에 대한 상세 설명
  - 1. 가구부문 고용통계조사
  - 2. 경제활동인구조사
  - 3.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주하는 질문
- III. 경제활동인구조사 MD 활용 사례

### 종류

### 가구부문 고용통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 •매월 전국 및 17개 시도 고용현황 파악
- •거시경제 및 고용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정부의 정책추진 평가자료로 활용

우리나라 고용통계

지역별 고용조사

- 반기별 조사(4, 10월)
- 154개 시군 고용현황 파악
- 일가정 양립, 사회복지정책수립 활용

사업체소재지

시군코드4자리까지 가능

산업분류

소분류3자리까지 가능

직업분류

추가정보

소분류3자리까지 가능

사회보험가입여부, 막내자녀 연령, 18세 미만자녀수 등

이민자 체류실태및 고용조사

- 연간 조사(5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고용현황 파악
-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영향 분석 활용

국적

거주/거처

고용

추가정보

응답자, 아버지, 어머니, 조상, 배우자 국적 등

동거인, 비동거인, 주택점유형태 등

사업체 이민자비율,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등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체류사항 등

15

#### 개요

### 3개 조사 간 비교

####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고용조사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목적

거시경제분석 및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을 조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공표주기/시기

월/조사기준 월 익월

반기(4월, 10월 기준)/조사 후 4개월 이내

년(5.15.기준)/조사기준 년도 12월

표본 추출 방법

조사구 가구 모집단 추출틀 추출 추출 35,000가구 국내 거주

인총조사구: 층화추출: 68만개 (일반 27개 지역별 선정 조사구-시설 1,737조사구

조사구 가구 모집단 추출틀 추출

국내 거주 인총조사구: 시군별 층화 약 196,360 15세↑인구 68만개 (일반 2단계 집락추출 가구선정 조사구-시설 9,818 조사구

표본 조사구 모집단 추출

국내거주15세↑ & 91일 이상 상주 외국인, 5년 이내 귀화허가자

법무부 장기 체류 외국인 명부, 법무부 귀화허가자

2상(Two-phase) 22,570명 외국인:13.5천명 귀화허가자: 5천명 시군구: 층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단순임의추출 : 각1.5천명

외국인:

층화계통추출

조사항목

■ **본조사**: 인적사항, 취업자 등 48개 항목

조사구)

■ 부가조사

15세↑인구

- 1)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취업자 중 임금근 로자에 관한 사항
- 2) 고령층 부가조사: 구직 및 취업경험, 장 래근로에 대한 희망 등
- 3) 청년층 부가조사: 최종학교 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
- 4)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사업자금 조달 방법, 창업규모 등
- 5)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취업상황, 향 후 취업희망여부 등

#### ■ 상반기조사(32개)

조사구)

- 기본항목:취업시간,구직활동 등 30개 항목
- 부가항목: 취업여성의 경력단절경험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2개 항목
- 하반기조사(34개)
- 기본항목:취업시간,구직활동 등 30개 항목 - 부가항목 :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주당취업시간 등 4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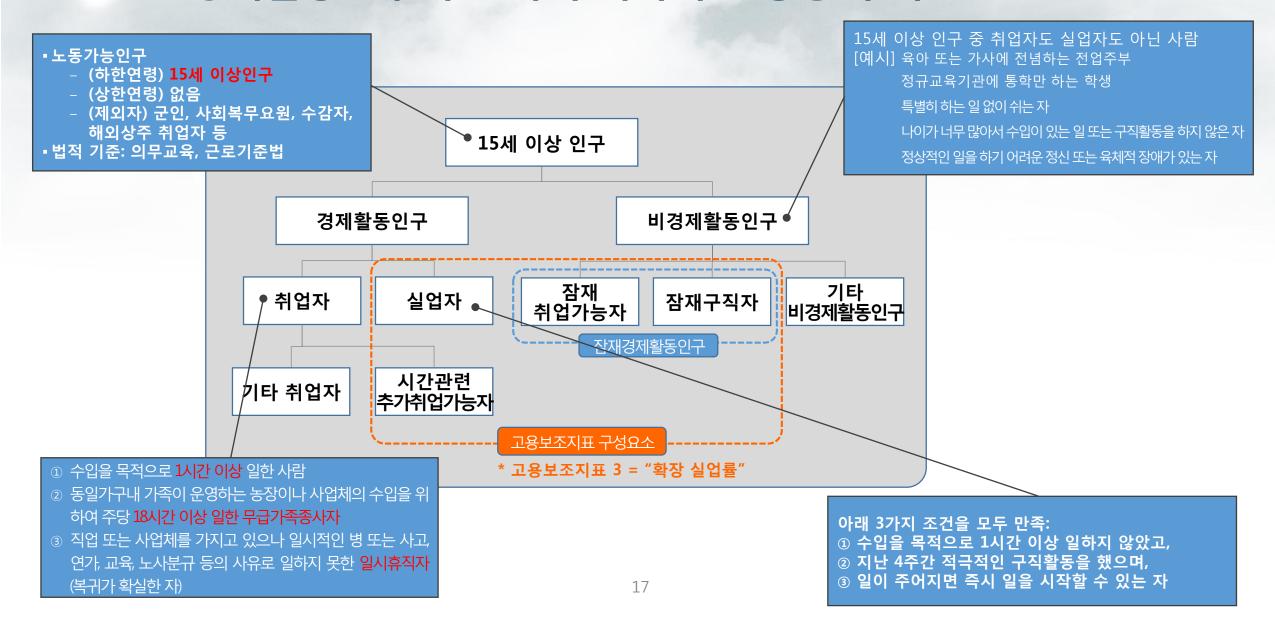
#### ■ 공통조사표

- 이민자(외국인+귀화허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 기본, 고용,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등 6개 부문 12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 ■ 부가조사표

- 방문취업(H-2)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중 국적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또는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조사항목(21개)으로 구성
- 유학생(D-2,D-4-1,D-4-7)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수원, 오산, 파주)

### 개념 경제활동인구 구조와 우리나라 고용통계 기준



## 산출식 고용지표와 고용보조지표

#### 국내 고용지표 산출식

■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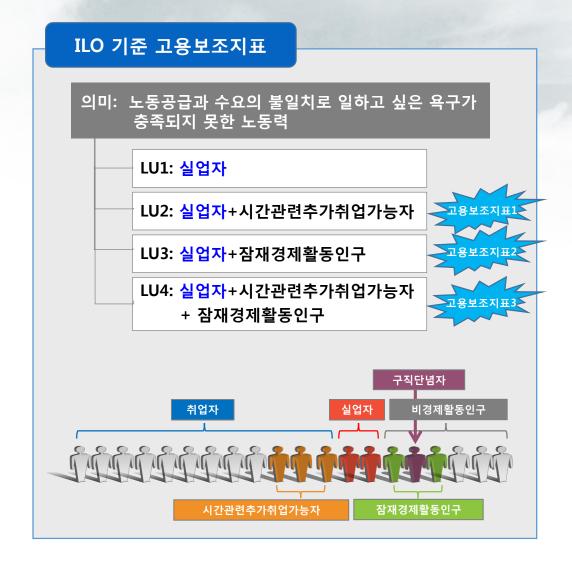
▪ 고용률

• OECD 국가간 비교 기준 고용률

\_\_\_\_\_15세~64세 취업자 \_\_\_\_15세~64세 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 실업률

\_\_\_\_\_<u>실업자</u> 경제활동인구 × 100



### [참고] 각국의 노동력 조사 기준 비교

		ILO	한국	미국	일본
	대상연령	일정연령 이상	15세 이상	16세 이상	15세 이상
_	조사기준기간	1주간(7일)	15일이 속한 1주간	12일 속한 1주간	월말 1주간
	취업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1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실업자 구직기간	4주	4주	4주	1주



- ✓ 한 시간 기준(One-hour criterion)
  - 기준기간 동안에 한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일 정량의 일(some work)을 한 것으로 간주
  - 적어도 한 시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한다면 노 동력 구조틀(labor force framework)에 기초하 여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
- ✓ 취업시간이 한 시간인 이유
  - 한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임시, 비정규, 비정기적인 일 등)를 포착
  - 집계단계에서 총노동 투입량과 총생산의 일치를
     보장하여 고용 통계와 생산통계의 통합분석 가능
  - 노동력 구조 틀의 우선성 규칙에 따른 것으로 실 업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situation of total lack of work)로 정하게 됨

# 조사내용 조사표 – 일, 구직, 이전 직장, 기타 활동, 추가 무급가족일

I 인적사항	
1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4 교 육 정 도 5
च व	(A & A )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2. 중 학교 2. 중 학교 2. 등 학교 3. 기혼자녀	전 3년대 대학 포함
※ '지난주' 는 '일요일~토요일' 의 지난 1주를 말합니다.	[3] 지난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Ⅱ 일에 관한 사항	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7. 가족적 이유
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2. 일시적 병, 사고 8. 노사분규 3. 날씨가 좋지 않아서 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1. 예 → (3) 번으로) 2. 아니오	4. 휴가·연가, 공휴일 10. 사업부진·조업중단 5. 교육·훈련 11. 기타( )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6. 육아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4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1, 예 →(₺)번으로) 2, 아니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8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
1. 있었음 2. 없었음 → (② 번으로)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10 번으로)
▼	(15)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③ 교육·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1, 있었음 2, 없었음 2. 없었음 153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⑥ 노사분규 ⑦ 사업부진 · 조업중단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⑧기타( )→(웹)번으로)	
9 지난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7 ~ 22 번은 지난주의 '주된 일' 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있었음 2. 없었음	12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u> </u>	♦ 사업체(직장)명
총 시간 □ 0 ~ 35시간 → (111 번으로) 2 36시간 이상 → (121 번으로)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총 시간은 '주된 일'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의 합계임]	18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1~ 4명 4, 30 ~ 99명 7,500명 이상 2, 5~ 9명 5,100 ~ 299명 3, 10 ~ 29명 6,300 ~ 499명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6. 본인이 원해서 2. 건강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3. 육아 8. 기타()	19 지난주에 직정(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5. 등학 4. 가사 5. 등학	◆ 내가 한 일
12 지난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 직명(직위)
1. 주된 일 : 시간	20)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2. 다른 일: 시간 3. 총 계: 시간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임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질문끝)

시난수의 일(식상)은 언제	무너 시식하였습니까?	시난 4수내에 식성(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지난주의 직재임)에서 고	년 월 요계약기가운 정취연습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급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많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체수단원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가나 많다고 교육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6,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육아	
,		8. 가사 10. 심신장에 9. 풍학 11, 기타( )	
[22 <u>41</u> ] 고용계약기간은 얼마	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④ :		1, 있었음 2, 없었음	
② 1개월 ~ 6개월 미만 ⑤ 3 ③ 6개월 ~ 1년 미만 ⑥ 9	1년 조과 ~ 2년 2년 초과 ~ 3년	→ 30-1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00112 12 12 0	]	2 0 1 년 월	
	(※질문끝)		
Ⅲ 구직에 관한 시	항	조리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그채 남아스니까?	1. 육아 7. 진학준비 2. 가사 8. 연로	
		3. 정규교육기관 통학 9. 심신장애	
1. 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 (2000) 번으로)	4. 입시학원 통학 10. 군입대 대기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1. 쉬었음	
[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그채 ㅂ아오'에 됐다하 1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12. 기타( ) 6. 취업준비	
[ ※ 게임에 6시(기기월 이네/근	[ 구에 포처럼 에 에ሪ점 ]	o, 역원문의 88* ( <b>ⓒ</b> ) 번 <u>○</u> 루	2)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	였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V 이전 직장(잌)에 관한 사항	
1. 있었음	2. 없었음 → (⑥) 번으로)	©2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
25 주로 어떤 방법과 경로로	진진(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있었음 → (63) 번으로)	
- 12 -12 08-1 04-2	(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8251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5-1) 구직방법은 주로 무엇	선이었습니까?( )( )	① 1년 미만 → 그만 둔시기: 2 0 1 년 월	
1, 시험 접수, 시험 응시		② 1년 이상 → (⑥3 번으로)	
<ol> <li>구직 등록, 구직 응모</li> <li>사업체에 문의, 방문,</li> </ol>		33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영업 준비		1, 개인·가족적 이유 7, 직장의 휴업·폐업	
<ol> <li>친척, 친구, 동료에게</li> <li>기타(</li> </ol>	소개 부탁 \	<ol> <li>육아</li> <li>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li> </ol>	
Annual Control of Cont	7 TV01/O 0101H01A1 1710 / V 1	. 4. 심신장애 10.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	진
2 수도 어떤 경도도 작 1. 공공 취업알선기관	장(일)을 알아보았습니까?( )( )	5. 정년회직, 연로 11, 기타( ) 6.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2. 민간 취업알선기관		P-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ol> <li>대중매체(신문, 잡지,</li> <li>학교, 학원</li> </ol>	, 광고 등)	84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4. 막교, 막원 5. 친척, 친구, 동료		♦ 사업체(직장)명	
6. 기타(	)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23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각	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 이전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월	1, 1~ 4명 4, 30~ 99명 7,500명이상	
		2. 5 ~ 9명 5. 100 ~ 299명 3. 10 ~ 29명 6. 300 ~ 499명	
	rar (@ <u>@</u> 번으로)	56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IV 기타 활동에 관	한 사항		
TILLEAN TITHOUS SIEL		<ul><li>◆ 내가 한 일</li></ul>	i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	있답니까!	◆ 직명(직위)	1
1, 원하였음	2. 원하지 않았음 → (⑥) 번으로)	37 이전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THE THE TITLE OF THE TOTAL TOTAL	Nelpi OIO LITIE + OIOL+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시난수에 식성(일)이 주어졌	였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있었음	2, 없었음	2. 임시근로자 5. 교통원이 없는 사생업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u>···</u> ·····	i 🖷
VI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83) 지난주에, 가족의 일을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절문골)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이의에 다룬 일도 하고 싶음 3. 미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작정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리로 않하고 싶음 → ((조) 반으로)
[38:4]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함께 사는 가족의 자영업 일 ② 함께 사는 가족의 입당근 말 ③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자영업 일 ④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작명업 일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u>영</u> 평소 1주 동안 총 및 시간 일합니까?	45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시간     ① 0 ~ 35시간 → (⑩ 번으로)	1, 있었음 2. 없었음
③ 36시간 이상 → (⑤ 번으로)	46)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u>40</u> ]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가족의 사업체 또는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직장)를 기준으로 기입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6, 본인이 원해서 2. 건강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3. 육아 8, 기타( ) 4. 가사 5. 봉학	◆ 사업체(작강)명  ◆ 사업체(작강)가 주로 하는 일  47 지난주의 직정(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41 지난주에 실제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총 시간 □ 1 ~ 35시간 → (12) 번으로) ② 36시간 이상 → (13) 번으로)	1. 1~ 4명 4. 30~ 99명 7.500명 이상 2. 5~ 9명 5.100~299명 3. 10~29명 6. 300~499명
42) 지난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1. 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7. 가족적 이유 2. 일시적 병, 사고 8. 노사분규 3. 날씨가 좋지 않아서 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얼어서 4. 휴가·연가, 공휴일 10. 사업부진 · 조업중단 5. 교육 · 훈련 11. 기타( ) 6. 옥아	◆ 내가 한 일       ◆ 격명(직위)       (※질문끝)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	한 주셔서 대단이 감사합니다.



### 제공항목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및 표본오차 고려 후 결정



<sup>\* 5</sup>개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별 제공 항목은 'MDIS 포털 >> 데이터 이용 >> 제공항목 목록 공개'에서 확인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지표 관련

[Q]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 실업자?

[Q]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나요?

[Q] 같은 달의 고용통계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 [A]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이기도 함. 입사원서를 제출한 것은 구직활동을 한 것이므로 실업자로도 볼 수 있음, 해당 사례는 우선성의 규칙(Priority rule)에 따라 취업자로 우선적으로 구분
- [A] 고용지표들은 경기적 영향 이외에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됨. 전월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예) 봄가을 건설 · 농촌에 일거리 증가, 졸업시즌 구직활동 활발
- [A] 고용통계에는 노동공급 측면의 가구조사, 수요 측면의 사업체조사,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행정통계가 있음. 조사주기, 조사시점,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지표라도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자주하는 질문

#### 지표 관련

[Q] 취업자수는 증가했는데, 왜 고용률은 상승하지 않나요?

[Q] 고용률은 하락했는데, 왜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나요?

항목 관련

[Q]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외국인도 포함된 조사인데 왜 국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요? [A]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는 지표 취업자가 증가해도 인구가 같은 규모로 증가하거나 또는 그 이상 증가하면 고용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음

[A] 고용률과 실업률은 경기 상황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음고용률이 낮은 경기침체기에는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구직자들이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함

[A] 조사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외국인을 분리하여 고용지표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외국인에 대한 고용지표는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구,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

### 자주하는 질문

#### 항목 관련

- [Q]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직업과 산업이 대분류로만 제공되는데 상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 [Q] KOSIS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행정구역별 집계가 제공되는데 마이크로데이터로 행정구역별 집계가 가능한가요?

- 산출 관련
- [Q]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기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계산방식은?

- [A]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오차의 이유로 직업과 산업에 대해 대분류로만 제공함. 대신 '지역별고용조사'는 A/B타입에 따라 산업별 중/소분류로 이용 가능
- [A]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도코드를 제공할 경우, 세분화된 교차표 작성으로 분석결과 신뢰도 저하 우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지역별 고용정보 이용 가능
- [A]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조사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기가 포함된 매월의 조사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함. 연간은 연평균

### 자주하는 질문

#### 산출 관련

[Q]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 임금근로자는 '1주간구직여부'가 0(취업자) 이면서 '종사상지위'가 1,2,3(임금금로자 조건)의 경우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

[Q]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승수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가중치의 합은 전체인구, 천명 단위로 공표하므로 월자료는 weight/1000, 연자료는 weight/12000로 적용

[Q] 취업자, 실업자 등을 명 단위로 발표하지 않고 천명 단위로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활조사는 표본조사로 취업자, 실업자 등을 통계적 기법에 의해 추정하고 있음. 표본조사에는 항상 표본오차가 존재하므로명 단위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

\* 이용 시 항상 신뢰구간과 표본오차 등을 고려하여 이용해야 함

### 자주하는 질문

부가 관련

[Q] 고령층 부가조사의 대상이 55~79세인데, 왜 15세 이상 자료가 포함되나요?

[A]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한 표본 사용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중 55~79세 대상만 고령층 부가조사 항목을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되며, 문항71번부터 해당됨

[Q]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대상이 동일한가요? 부가조사 간 개인ID 및 가구ID를 이용하여 연계가 가능한가요?

[A]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는 분야별로 연1회 조사되며 해달월 본조사와 표본이 동일함. 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월간, 년간의 연계 key를 제공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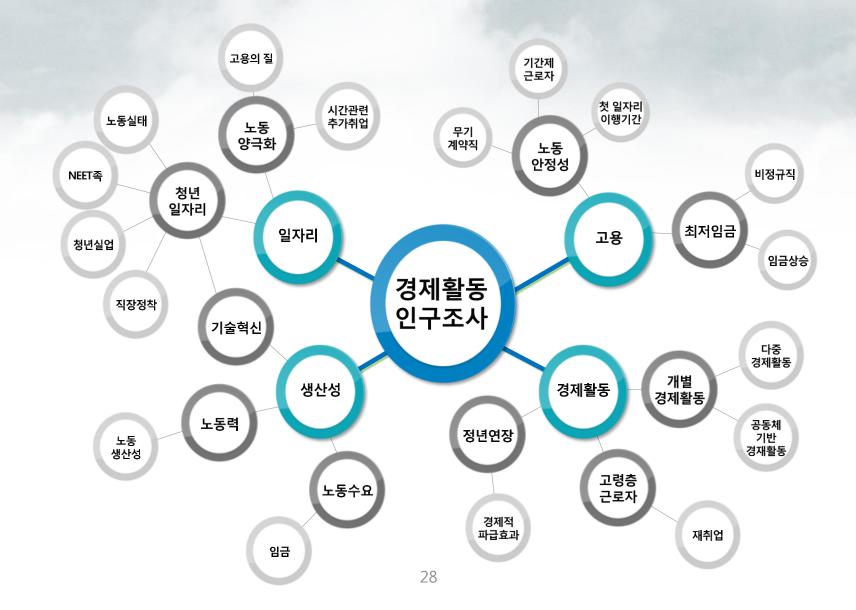
#### 교육 내용

- I. MDIS 소개
- II. 고용통계 상세 소개

#### III. 경제활동인구조사 MD 활용 사례

- 1. 연구사례
- 2. 기사 스크랩

# 키워드 고용, 일자리, 경제활동, 생산성



### 연구사례 중소기업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기술통계분석

연구제목: 중소기업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 김주영 (산업연구원) 발표일: 2018-12-31

연구목적

중소기업 청년고용 시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실태 자료의 제시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의 제공과 실증 분석 및 해외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활용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2018))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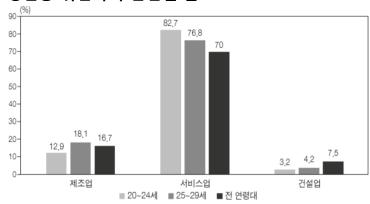
####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114	86	86	

####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 서비스업종에서 청년취업자의 비중은 전 연령대에 비해서 뚜렷이 높고 특히 20~24세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 취업자 비중이 12.7%p 높아서 청년층의 서비스 업종 선호를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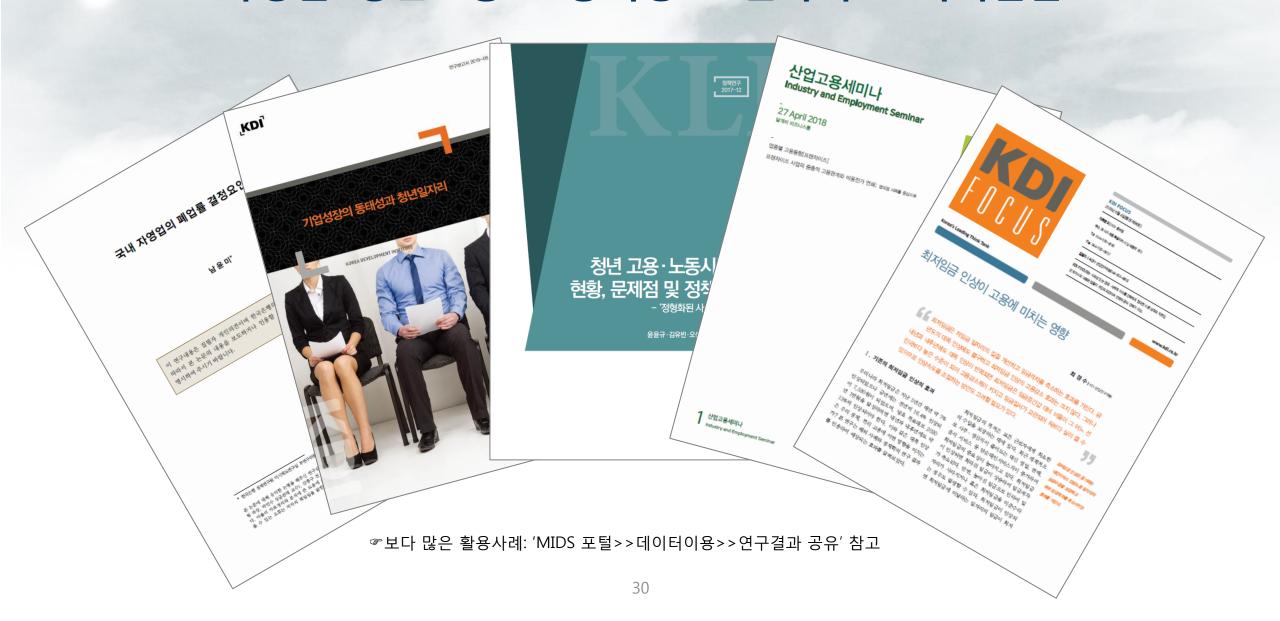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비율(휴학 혹은 재학은 제외)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상용직	46.1	56.1	74.0	72.6
임시직	43.4	34.1	17.8	13.9
일용직	10.5	5.5	1.8	1.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	0.6	1.2	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	2.0	3.9	6,1

- ☞ 20대 초반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높은 이유로 학업과 병행할 일자리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 그러나, 휴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0대 초반에서의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40%에 육박함에 따라 이들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연구사례 자영업, 청년고용, 노동시장,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 활용사례 기사 스크랩

東亞日報

#### 2019년 01월 07일 (월)

### 최저임금, 저학력층에 더큰 타격… 실업률, 초졸〉중졸〉고졸 늘어

#### 학력별 고용동향 분석해보니

서울 종로구의 한 마용실은 새해 들어 8명이 던 '인턴 직원' 중 6명에게 주 4일만 근무하도록 조정했다. 2명은 퇴사시켰다. 머리를 감겨주거 나 미용실을 정리하는 인턴 수가 줄면서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 미용실 원장은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고통 분담을 했다"며 "인턴 직원 1인당 인건비가 1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가량 더 늘어 나사장이 어렵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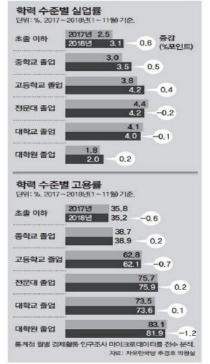
#### ● "저학력층, 일자리 쇼크 직격탄"

고용시장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이 더 심 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오히려 저학력자 일자리 없애" 대졸-전문대졸 고용률은 소폭 개선 한국당 오늘 경제단체와 간담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2017, 2018년(각각 1~11원) 통계정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전체 실업률은 3.7%에서 3.9% 로 0.2%포인트 높아졌는데, 고졸 이하 저학력 증 고용륨과 실업률 약화가 두드러진 것.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종졸, 고졸 순으로 실업률 상승 폭이 컸다. 초졸 이하 실업률은 지 난해 3.1%로 2017년 2.5%에 비해 0.6%포인 트 뛰었다. 종졸 실업률도 2017년 3.0%에서 지난해 3.5%로 0.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 간 고졸 실업률도 3.8%에서 4.2%로 0.4%포 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 실업률은 2017년 4.4%에서 지난해 4.2%로 떨어졌고, 고용률도 75.7%에서 75.9%로 나아졌다. 대졸자 실업률도 2017년 4.1%에서 지난해 4.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저학력층이 단순 노무 직종에 종 사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분 석했다. 언세대 성태윤 교수(경제학)는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괄적으로 노 동 비용을 올리는 충격을 주게 되면 저숙련, 저 학력 근로자가 타격을 더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 하락은 정 부가 복지 정책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관련 업중 일자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 여야, 경제지표 놓고 '프레임 전쟁'

정치권에선 악화된 경제 지표를 둘러싼 여야 의 프레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 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 가한 것을 바라보는 여야의 태도도 정반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 협회 중건기업연합회 최고위 인사들과 긴급 간 당회를 연다. 한국당이 주요 경제단체와 회동하는 건 야당이 된 후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 및 경 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 했다. 추경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저학 력층의 실업률 악화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 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이라도 반시장적 경 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경제 실패 프레임' 쓰 우기로 해석하며 반격을 꾀하는 양상이다. 유 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30년을 함께 알해 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 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50억00000.com

35.6 X 22.3 cm

### 활용사례 기사 스크랩

2019년 08월 28일 (수) 12면 사회

## 東표目報 밀려난 실직자 80만명··· 상용직 실업 늘어 質도 나빠졌다

#### 상반기 비자발적 실직 8년만에 최다

서울 마포구의 한 베트남음식점에서 매장판리를 하던 박모 씨(36)는 올 5월 일을 그만둬야했다. 월 8000만 원에 이르던 가계 매출이 1년만에 반 토막 나자 사장은 박 씨를 내보내고 직접 매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그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 다들 직원을 줄이려고만 하지 뽑질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시급제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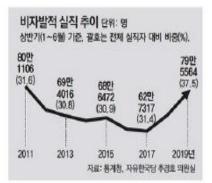
박 씨처럼 올 상반기(1~6월) 회사가 문을 닫 거나 정리해고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 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올 상반기 (1~6월) 실직한 사람은 212만139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직장 휴·폐업, 조기퇴직,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는 79만5564명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이 같은 상반기기준 비자발적 실직자는 2011년 80만1106명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실업자 대비 비지발적 실직자 비중은 37.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경기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건강, 육아, 나이, 처우 불만 등의 본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 이 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상반기 상용직으로 일하다 원치 않게 그만든 사람은 19만608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9%



회사 폐업-정리해고 증가 영향 쫓겨난 상용직 1년새 32% 껑충

"삶 팍팍해져 경제활동인구 증가 정부, 고용시장 회복 해석은 착시" 늘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속한다. 이런 상용 직에서 밀린 근로자 수가 2017년만 해도 11만 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동안 '실 업의 질'도 악화된 셈이다. 이는 경영사정이 나 빠진 회사들이 대규모 감축에 나서고 있는 영 향으로 풀이된다. 5년간 다닌 의류무역회사에서 이달 권고사직을 당한 이모 씨(32·여)는 "200명 규모 회사에서 한꺼번에 30여 명이 나 왔다"며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분 위기"라고 했다.

이처럼 생계 터전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 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7월 고용동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고 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건 경제활동참 가자가 늘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보 였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지난

달 경제활동참가율은 6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을 반 도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가장의 소득이 줄어 다른 가 족 구성원까지 구직에 나서는 '부가노동자 효 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경 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지금 은 고용시장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삶이 더 팍팍 해진 결과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노인과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를 늘리 면서 구작활동에 나서는 사람이 덩달아 증가한 영향이 분명 있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 기 일자리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 다. 추 의원은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늘리고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빨리 전환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35.9 X 12.5 cm

### 활용사례 기사 스크랩

#### 한국일보

2019년 09월 17일 (화) 10면 종합

####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 고령층만 덕 봤다

월 평균 취업자 24만9000명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증가분의 84%가 65세 이상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은 65세 이 상 노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연령층에서 고용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질 좋은 일자 리'증가의 상당 부분도 고령층에 집중 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 평균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만9,000명 늘어났다. 월평균 9만7,000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말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취업자 증가 규모 15만명은 물론이고 지난 7월 상향조정한 20만명도 넘어섰다.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8월 (45만 5,000명)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증가폭

이 22만명에 이른다. 청와대가 전날 "금 년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을 상당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껏 고무된 목소리를 낼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 개선이 일부 연령 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1~8월 65세 이상 취업자는 윌평균 전년 대비 21만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4.3%를 차지했 다. 여기에 60~64세까지 포함하면 고령 층 취업자가 35만5,000명에 달해 전체 증 가분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15~59세 취 업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0만명 이 상 감소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령 취업자가 1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33만5,000명 증가하는 사이 65세 이상은 32만8,000명, 60세이상은 55만6,000명 늘어났다. 15~59세인구는 줄어들고 60세 이상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 '60세 이상이면서취업자'인 사람도함께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만들어낸 '노인일자리'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 보니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용직(계약 1년 이상) 일자리도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 다. 상용직 취업자는 △6월 38만8,000명 △7월 43만8,000명 △8월 49만3,000명 늘 어나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동향 발표 때마다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주요 근거다.

그런데 올해 1~7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8월 자료는 미공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 구의 상용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만2,000명 늘어나이 기간 전체 증기분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상용직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6.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질 개선도 고령층 위주로 진행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 취 업자가 크게 늘면서 상용 취업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사회복 지 서비스업에서 노인 일자리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17.9 X 15.6 cm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 감사합니다